

가막살나무열매 8고  
20202198 양지우

### 1씬 - 절 입구 / 낮

카메라 속 여자의 뒷모습. 절을 올려다보고있다.

여자  
내가 녹화 끊으라고 할 때까지 절대 끊지마.

- 응

카메라 너머 들리는 목소리. 남자다.  
뒤돌아보지 않는 여자. 카메라 여자의 앞으로 가 정면을 담는다.

-뽀뽀할까?

여자 남자를 바라본다.

여자  
응

카메라 뒤 들리는 둘의 뽀뽀소리.

### 2씬 - 절 안 / 낮

절로 들어선 둘.

절 안으로 들어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담고있는 카메라.

여자 들어가다가 한구석 나무들 앞에 멈춰선다. 붉고 작은 열매들이 열려있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잡으려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함부로 따시면 안돼요”

여자 누군가의 목소리에 몸이 굳었다. 뒤돌아보지 못한다.  
스님의 얼굴.

한동안 뒤돌지않고 여자를 기다리는카메라, 결국 뒤돌아 스님을 담는다.

- 죄송합니다 스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스님의 인자한 웃음. 남자의 카메라를 바라본다.

- 아, 이걸 그냥 저희끼리 소장할 목적으로 찍으려 하는데요

여자 뒤돈다. 스님에게 다가간다.

여자  
안녕하세요

마주치는 둘의 시선. 웃어보이는 스님

스님  
네 안녕하세요

### 3씬 - 절 누각 / 낮

‘녹화시작하겠습니다’

소리에 맞춰 울리는

-삐릭-

스님의 뒷통수를 걸고 보이는 여자.  
스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있다.

여자가 아무말도 하지 않자 스님이 먼저 입을 연다

스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골에있는 절까지와서 대화를 하고싶다 하시니 신기해요

여자  
이 절에서 지내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스님  
음... 까마득하네요..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여자 카메라 렌즈를 보고 고개짓으로 어딘가를 가리킨다. 카메라를 보고있던 남자 고개를 끄덕인다.

여자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스님의 웃음

스님  
감사합니다

여자  
그런 스님도 불경한 짓을 할 때가 있나요?

### cut to. 여자의 집

혈벗은 채 키스하고있는 여자와 남자.

남자 여자를 침대로 눕히려 한다. 그때 여자 남자의 혀를 깨물어버린다.

남자  
아악!

하고 떨어져 나가는 남자. 여자 입가의 피를 닦는 남자를 뒤로한 채 침대 옆 소파에 앉아버린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헛웃음 지으며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여자.  
카메라를 들어 여자를 담는다.

-삐릭-

- 사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자

여자  
너 내이름 알아?

- 몰라

남자의 말에 웃는 여자

여자  
스님도 섹스같은거 할까?

여자의 말에 웃음이 터진 남자.

- 보통 안하지

여자  
내일 절에 갈래

- 절?

여자  
전자발찌 찬 스님이 있어

남자 시선을 올려 카메라 너머 여자를 바라본다. 자신에게 다가오고있는 여자.

여자  
재밌겠지, 스님이 전자발찌를 찢어 그럼 섹스를 한다는 거잖아  
같이 가 니가 찍어

그런 여자를 바라보고있는 남자.

**다시현재.**  
긴장한 남자의 표정

여자  
스스로 말이에요. 어떤 불경한 짓을 저질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를들면 섹스같은거요. 그럴땐 어떻게 참으세요?  
참지 못하고 저질러버렸을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자 방언터진 듯 나불댄다. 그리곤 스님의 발목 바짓단을 바라보다가  
손을 뺀어 걷어올려버린다.  
남자의 카메라 갑작스러운 여자의 행동에 다급하게 여자의 행동을 좇는다.

카메라 속 보이는 스님의 험한 발목

여자  
와 풀었네

여자 바로 반대쪽 올리려는 데 손으로 막는 스님  
여자를 바라본다.

스님  
무슨 말씀이시죠?

여자  
왜 풀었어요? 부끄러워서?

마주치는 스님과 여자의 시선.

스님  
뭘 찾고 계시는 건가요?

여자  
몰라서 물으세요?

절대 눈을 피하지 않는 둘. 점점 굳어지는 스님의 표정. 카메라 속 여자. 스님을 바라보다 조금씩 웃기 시작한다.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던 남자. 그런 여자를 바라보다

-빠릭-

**4씬 - 절 구석 / 낮**  
남자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여자.  
손을 팍 풀어 버린다.

여자  
내가 녹화 끊지 말라고 했잖아

지나쳐 남자의 손에있는 카메라를 뺏어들고 구석으로 가 영상을 재생하는 여자.  
그런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  
여자 스님의 반응을 계속 돌려본다

남자

저 스님이야?

여자  
뭐가?

남자  
너 섹스 못하게 만든 사람

여자 남자의 말에 영상보던걸 멈추고 남자를 바라본다. 비웃음.

여자  
아는척 지랄하지만

여자에게 다가오는 남자.

남자  
근데 없잖아

여자  
너 반대쪽 봤어?

남자  
없어

여자  
있어

남자  
없잖아

여자  
있어

정적.

남자  
알겠어 그럼 내가 찍어줄게, 없는거. 그럼돼?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

여자  
아니? 있는걸 찍어

남자를 쳐다보는 여자.

여자  
있어. 그니까 꼭 따.  
꼭 따서 난 여기 불 지를거야. 그게 내 꿈이야. 도와줄거지?

대답하지 않는 남자.  
여자 남자를 안아버린다

여자  
사랑해.  
그니까, 녹화 끊지마

### 5씬 - 절 안 / 낮

스님과 대화하는 남자. 여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멍하니 바라보고있다. 대화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시원한 바람소리.

여자의 시선. 스님의 얼굴이 점점 클로즈업 된다. 스님과 눈이 마주친다.

**6씬 - 절 안 / 낮**

여자  
말씀 잘 드렸어?

스님  
직접 하셔야죠

넘어가는 화면 스님의 얼굴

스님  
실수를 하셨을 때는,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이 남성분처럼요

남자를 향해 웃음짓는 스님.  
남자 마주선 스님과 여자를 바라본다.

스님  
그렇죠?

대답없는 여자.

스님  
아닌가요?

스님을 쳐다보는 여자.

여자  
죄송합니다.

스님  
네 잘하셨어요

그런 둘을 바라보고있는 남자.

**7씬 - 절 안 / 낮**

걷는 두사람. 의 모습을 담고있는 남자.  
남자 여자를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스님의 발목으로 옮긴다.

여자  
절이 참 아름답네요

스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좋네요, 요즘 너무 삭막하지 않나 걱정했거든요

세사람의 정면 풀 샷. 대화하며 걸어가는 둘 뒤로 우스꽝스럽게 어떻게든 발목을 찍어보려는 남자가 보인다.  
갑자기 멈춰 선 여자.

여자  
저는 이 나무가 좋았어요

같이 멈춰서는 스님. 여자의 시선을 따라 나무를 바라본다. 붉고 작은 열매들이 열려있다.

스님  
오신적이 있으신가요?

스님 여자를 바라본다.

여자  
아뇨, 이 나무 유명하잖아요. 가막살나무. 이 열매랑요.

남자의 카메라 아슬아슬 발목이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

스님  
저도 좋아해요 이 나무. 특히 열매가 참 좋아요 그렇죠?

여자  
어린 애들은 싫어해요

남자 카메라. 줌을 확 땡겨 발목에 초점을 맞춘다.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

스님  
그치만 잘 먹는 아이도 있죠

여자 스님을 한번 바라보고는 나무쪽으로 간다.

여자  
착한일을 많이하면 이 열매를 따주셨는데

스님도 여자를 따라 간다. 여자 열매를 따러는데

여자  
달아보여도 엄청 쓰거든요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

갑자기 비명과 함께 자신의 손을 붙잡는 여자. 붙잡은 손끝에서 피가 새어나온다. 스님 깜짝 놀라 여자에게 다가가 손을 빼와 자신의 옷소매로 피를 닦는다. 손 안 따냈던 열매가 터져 피와 구분할 수 없게 손이 빨갱게 물들었다.

스님  
괜찮으세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어루만지고있는 스님.

여자  
스님이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먹는거

스님을 바라보는 여자. 스님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손만 살핀다.

여자  
기억 안나세요?

여자의 말에 그제서야 여자를 바라보는 스님.

스님  
소독하셔야겠어요

그저. 걱정하는 얼굴.

여자 스님의 얼굴을 보고 당황. 고개를 핵 피해버린다.

남자를 바라본다.

아직도 발목을 찍으려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카메라를 든 모습.

남자의 카메라. 여전히 스님의 발목.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

성큼성큼 남자에게 다가가 카메라를 뺏어들곤

-삐릭-

### 8썩 - 절의 한 방 안 / 밤

어느새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

절의 한 방 안 구석. 여자가 웅크려있다. 손가락에 붙여진 밴드를 바라보는 여자.

남자 그런 여자를 바라본다

남자  
끊지 말라며

여자 대답이 없다.

남자  
니가 끊었어

여자  
알아

남자  
나 같까?

여자 남자를 바라본다.

여자  
알아서해

마주치는 둘의 시선.  
남자 여자에게 다가가 뽀뽀하려한다.  
여자 피한다.

여자  
카메라는 두고가고

남자 여자의 말에 헛웃음 친다.

남자  
사랑해.

남자의 말에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

여자  
너 내이름 알아?

남자  
알아, 세희

여자  
그거 아닌데

시선이마주치는 둘.

여자  
그니까 그냥 찍어.

남자를 등지고 뒤돌아 눕는 여자. 남자 바닥에 놓인카메라를 바라본다.

### 9썩 - 꿈 / 아침

환한 가을 햇살. 붉고 작은 가막살나무 열매가 가득 열린 절의 한 뒷편.  
스님이 열매를 따고있다.  
그때 누군가를 발견한 듯 열게 웃으며 열매를 보여주는 스님의 얼굴

### 10썩 - 절 한 가운데 / 새벽

어두컴컴한 새벽. 비가 쏟아져내리는 광활한 절 한 가운데  
여자 눈을 뜨니 빗 속 한 가운데 서있다.  
한참을 서있다가 어디론가 걸어간다.

11썸 - 대웅전(부처를 모시는 곳) 앞 / 밤

pov. 쏟아지는 비. 대웅전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진다.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스님의 염불외는소리. 점점 커진다.

문이 열리고 보이는 스님의 뒷모습.  
스님의 앞 자리한 커다랗고 근엄한 불상.  
스님에게 다가가는 발자국 소리. 멈추지 않는 스님.

한참 후 뒤돌아보는 스님.  
스님이 바라보고있는 카메라. 그 뒤 남자다

스님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남자  
전 그런거 몰라요

스님  
그럼 알아가시면 됩니다.

남자  
제가 알고싶은건 따로 있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스님  
어떤걸 말하면 될까요?

남자  
저 여자한테 무슨짓 하셨어요?

스님  
이름도 모르는 분을 도와주고 계시는군요

남자  
그러는 스님은 잘 아시나 봅니다.  
저 여자 좋아하세요?

정적.

스님  
저 아이가 이렇게 물었죠, 불경한 짓을 해본 적이 있냐고

스님을 바라보는 남자

스님  
사람이라면 해본적이 있을테지요  
없다고는 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목을 보여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남자  
이것도 알고계셨네요

스님  
이 영상을 저 아이도 보겠군요

남자  
그럼 누가봐요 이걸

스님  
그렇다면 보여드릴 수 없겠네요  
(사이)  
그 카메라가 모든 진실을 담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12썸 - 절의 다른 방 안 / 새벽

또다른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여자  
여자의 시선 - 잠들어있는 스님  
스님에게 다가가는 여자. 내려다 바라보다가 옆에 누워버린다.  
잠들어있는 스님 옆. 스님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여자.

아니.  
잠들어있는 스님 옆. 스님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동자승.

동자승 어느새 스님의 위에 올라 타 앉아있다.  
스님에게 입맞춤 하는 동자승

눈을 뜨는 스님.  
마주치는 둘의 시선.

스님 상체를 일으킨다.  
아무 말없이 서로 바라만 본다.

### “나를 욕망하는구나”

풀샷. 어느새 혼자 남겨진 동자승.

-빠릭-

녹화소리와 함께 다시들리는 거센 빗소리.  
여자 시선을 핵 돌려 카메라를 바라본다.  
여자. 흠뻑 젖은 채로 잠들어있는 스님의 위에 올라 타 앉아있다.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뚝. 뚝. 카메라를 바라보다 다시 시선을 스님에게로 돌린다.

잠들어있는 스님.

스님에게 입맞춤하는 여자.

녹화를 멈추지 않는 남자.

### “사랑해요”

카메라 너머 실제 모습을 바라보는 남자.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잠들어있는 스님.

여자 스님의 손가락을 들어 깨물기 시작한다.  
그러나 눈을 뜨지 않는 스님.

피가 나오기 시작한다.  
찌그러지는 스님의 얼굴. 그러나 눈을 뜨지 않는 스님.

피가 흐른다.  
점점더 찌그러지는 스님의 얼굴. 그러나 눈을 뜨지 않는 스님.

여자 스님을 노려본다.  
웃음이 터진 여자.  
여전히 눈을 뜨지 않는 스님.

그 모습을 담고있는 남자.  
녹화를 멈추지 않는다.

13번 - 절의 한 방 앞 / 아침

들려오는 새 소리 바람소리. 너무나도 평화로운 절 안.  
마루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있는 남자. 전체삭제 버튼을 눌러버린다.

그때 방 안에서 여자가 나온다.  
마주치는 둘의 시선.

남자  
불거야?

두 사람의 긴 침묵

여자  
됐어

그때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스님. 손에는 붉은 가막살나무열매가 가득.  
스님의 손 위 열매를 바라보는 여자.  
시선을 눈치 챈 스님

스님  
아침에 댕습니다. 좋아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조금 가져가시겠어요?

여자 스님의 앞에 멈춰 서 열매를 바라본다.  
여자의 시선 - 스님의 손가락에 밴드  
지나쳐 걸어간다.

스님 뒤돌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스님  
인애스님

여자 뒤돌아 스님을 바라본다.

스님  
좋은 친구가 생겼네요

먼 거리를 두고 서있는 둘.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 바라본다.

여자  
왜 나를 찾지 않았어요?

바람소리.

스님  
인애스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자의 시선. 멀리. 작게 보이는 스님. 뒤로 광활한 절.  
여자 뒤돌아 절을 빠져나간다.

스님앞에 선 남자. 스님 손에 들린 가막살나무 열매를 한움큼 쥐어든다.

스님  
너무 많이 드시면 탈이 날 수 있어요

남자  
괜찮아요

광활한 절. 그 속에는 스님. 뒤로한 채 절을 빠져나가는 여자. 그 뒤를 따라가는 남자.